

14-143 to 14-145: 자신들이 지녀야 할 위치

hdhstudy.com/1964/14-143-to-14-145-%ec%9e%90%ec%8b%a0%eb%93%a4%ec%9d%b4-%ec%a7%80%eb%85%80%ec%95%

자신들이 지녀야 할 위치

1964.09.18 (금), 한국 전본부교회

14-143

자신들이 지녀야 할 위치

[말씀 요지]

앞으로 6개월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할 기간이다. 이 기간에 선생님은 여기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천적인 책임을 갖고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정한 시기에 불리움 받아 크나큰 사명을 지고 원수 앞에 서 있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이상의 목적을 두고 생각할 때에 정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열을 갖추어 행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역사를 빛내는 엄청난 일이니만큼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14-143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세워진 나

이제부터 우리는 출발도 공적이요 과정도 공적이니, 공을 세우는 입장에서 움직여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들이 지녀야 할 위치'이다.

아담 해와가 자라던 그 위치는 행복한 위치였으며, 하늘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였다. 하나님은 창조이념 전체를 아담 해와에게 걸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셨다. 아담 해와가 완성되는 것은 개체의 완성, 가정의 완성, 세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아담과 해와는 자기들의 위치를 모르는 자리에서 타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를 중시하고 이루어야 할 가정과 세계가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벨을 세우셨으나 아벨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아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과 그 사정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오늘날까지 인류의 비참한 역사의 연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담 이후 1,600년만에 세워진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하였으나, 하나님이 노아를 두고 바라신 그 내적인 심정을 몰랐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120년, 이 120년 기간이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심정과 사정을 모르는 노아를 바라보고 마음 졸이는 입장에서는 몇 억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또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세워 섭리하셨으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일치점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내적인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탕감복귀할 책임을 지고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심정적 주체이시다.

우리는 복귀도상의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아담 하나가 이루어야 할 기준을 못 이루었으니 다시 가정적 아담, 종족적 아담, 민족적 아담, 국가적 아담, 세계적 아담이 나와서 탕감복귀를 해야 한다. 우리는 종적인 탕감조건을 횡적으로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정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과거에 왔다 간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역사상의 모든 선지선열들이 못다 한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승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에 다시 와서 영육 아우른 구원의 기준을 세워 실제적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우리 앞에는 축복과 대립되는 노정이 있으니 싸워 이겨야 한다. 야곱도 가나안 복귀도상에 있어서 라반과 싸워 이기고, 천사와 싸워 이겨 가정적 이스라엘 기준을 닦았다. 내적 사탄 입장에 선 에서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기준을 세웠던 것이다.

예수의 개체가 서기 위해서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가정이 서기 위해서는 종족이 있어야 하고, 종족이 서기 위해서는

민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복귀섭리의 원칙이다.

오늘날 통일 종족이 서기 위해서는 민족적 기반을 공고히 닦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외적인 이스라엘과 내적인 예수님의 개체와 그 가정이 일체가 되었으면 그때에 세계를 수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던 사명을 완수했을 것이었다.

비록 예수님께서 외적인 세계를 실제적으로 복귀하지 못했으나 내적인 메시아의 위치를 상속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구원섭리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도들이 이를 상속 받아 내적 섭리의 사명을 다해야 했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오시는 주님은 개인적인 이스라엘, 가정적인 이스라엘, 종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 세계적인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아담의 입장을,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의 입장을 재현시켜 그 범위를 넓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노정에 있어서 원수에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서 종의 자리를 거쳐 양자의 자리, 직계의 자리를 세워 나오셨다.

14-145

역사적인 시점에 있는 나

이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라면, 이곳으로 오시는 주님은 세계의 모든 주권국가를 다 하늘편으로 복귀해야 한다.

내적으로 개인을 승리적인 입장에 세움은 내적인 승리의 세계를 동반함을 뜻한다. 통일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핍박을 받아 왔다. 대각선을 이루어 나온 선과 악은 이제 서로 교차하여 악은 내려가고 선은 올라가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하나님과 인연을 가진 통일교회를 중심으로 수습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리를 선포해야 한다. 1957년 이래 금년이 7년째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이념을 세워 나가야 한다.

가인과 아벨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투쟁에서 승리해야하고, 가정적인 투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민족적인 투쟁에서 승리하여야 하겠거늘, 여러분이 언제 이러한 싸움을 책임지고 해봤는가? 그러지 못했으니 이 스승을 앞장 세워서 투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투쟁을 넘어선 사람이 가장 바라는 소원은 어느 때 가정적인 승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정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가정의 곡절을 더듬어 보아야 한다. 우리 축복가정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이 나라의 가정들을 화목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여러분이 민족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제물의 과정을 걸어가라. 그리고 세계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제물의 과정을 걸어가라.

여러분은 이념을 중심삼고 얼마만큼 민족적인 기준에 부합되어 있으며 또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되어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사명이 중한 것은 통일교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된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그리워하며 수고해 오셨던가?

뜻을 대하고 나온 식구들의 입장은 아벨을 죽인 가인이냐, 아벨에게 순종한 가인이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개인이 탕감해야 할 책임을 못하면 가정적으로 탕감해 나와야 했고, 가정이 탕감해야 할 책임을 다 못하면 종족이 그 책임을 탕감해 나와야 했다. 선생님이 40평생 이렇게 수고하여 닦아놓은 기준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 역사의 어느 충신 이상으로 땅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린 선생님이라는 것은 하늘이 공인한다. 선생님이 없으면 이 민족과 하늘땅을 위하여 눈물 흘리던 그 기준을 누가 책임지고 대신해 줄 것인가? 그러기에 어머니를 두고 가며 애기들을 두고 간다. 이 책임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전체를 동원시키는 것이다.

6개월이란 기간을 세워 놓고 탕감의 조건을 세워 나가라. 6개월도 못 하겠다는 사람 있다면 차라리 죽어라.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울타리가 없다 해도 이 자리는 귀한 자리이다. 이 자리는 억천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자리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곳이냐! 이 4년 기간 내에 책임을 못하면 세계에서 제일 어

려운 자리에 여러분을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아버지의 심정을 통한 실체가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통일교회의 말씀은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이다. 인격은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인격이라야 한다. 우리는 축복을 통하여 같은 혈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4년노정에 있어 국가적인 책임을 다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는 소망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위해 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임지를 나가는 3인 중 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책임, 나머지 둘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책임이 있다. 말은 바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를 부탁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모든 일을 다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이 이념이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는 가? 이 엄숙한 사명 앞에 동참하여 책임 다해 주길 바란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그 무엇보다 강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그 무엇보다 더 강해야 한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